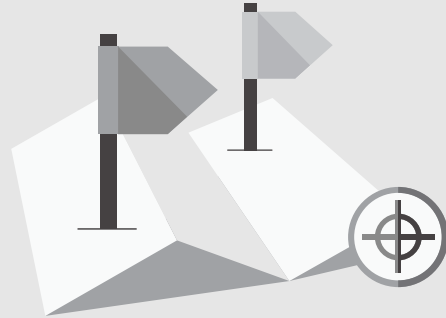


# 이달의 초점

가족과 인구 행동 변화의 정책적 함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를 중심으로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박종서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변수정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함의  
장인수

자녀 돌봄 실태와 정책 함의  
김은정

생활시간 배분과 일·생활 균형  
조성호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최선영



####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년 주기로 '가족과 출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도 조사부터 조사 명칭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가족과 출산 조사'로 변경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행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같은 생애사건을 중심으로 이행-지연-미이행과 관련되는 다양한 생애경로를 개인 단위와 가족 단위로 파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작용 기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700개 조사구에서 추출한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완료 표본은 9,999가구, 1만 4,538명이었고, 배우자와 애인 및 파트너가 응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57.1%였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U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거쳐 IRB 승인(제2021-070호)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번 호 이달의 초점, '가족과 인구 행동 변화의 정책적 함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를 중심으로'에 게재된 원고는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재구성한 것이다.

#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sup>1)</sup>

Some Key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Cohabitation

변수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은 법률혼이 대다수이지만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동거 관계도 존재한다. 그동안 관련 조사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혼인 상태 분류는 한국의 파트너십 특성을 주로 법적 혼인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거 관계의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아 한국 사회의 파트너십을 실질적·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의 파트너십 다양성을 반영하여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해 조사하였다.

이 글은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며, 한국 사회의 최근 파트너십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는 서로 법적으로 구분되면서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한국 파트너십의 다양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거 관계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여 그 규모나 면밀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통계 및 자료 생성이 중요하다. 또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는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성인이 되면 누구나 하

는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생각과 실천의 변화에 따라 이제 더 이상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

1) 이 글은 박종서 외.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제4장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다. 실제로 혼인율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감소하였는데, 1990년 9.3%였던 초혼인율(인구 천 명당 혼인 건수)이 2000년에는 7.0%, 2020년에는 4.2%로 1990년과 비교해 현재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통계청, 각 연도). 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2년 45.9%에서 2020년에는 59.7%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결혼의 대전제와 당위성이 과거보다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법률혼이 다수인 상황에서 혼인 상태는 크게 미혼, 기혼으로 나누고 기혼은 다시 유배우, 이혼, 사별, 별거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생활에서 결혼 방식은 다양화되었지만 행정통계나 조사는 전통적인 구분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그동안의 조사나 연구를 통해 사람들의 실질적인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거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다양한 파트너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세분화된 혼인 상태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과 현실의 혼인 관계 복잡성을 반영해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 여부'를 우선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는 사람에게 '혼인신고 여부'를 조사하여 법적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하였다. 만 19~49세 조사 참여자 1만 4,149명 중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 및 파트너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1%였다. 그중 혼

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322명(95.6%)이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거나 애인이나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과 동거 관계인 경우는 336명(4.4%)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현재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애인·파트너가 있는 집단 중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속하는 관계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동거 관계의 특징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아봄으로써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관계의 특성 파악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결혼 관계의 시작과 관련된 특징들을 중심으로 들여다본다.

## 2. 혼인 관계

현재 법적인 혼인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 결혼식 여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시점, 배우자와 결혼할 당시 상대에게 기대했던 점 등을 알아보았다.

### 가. 결혼식 여부와 결혼 시점에 대한 생각

#### 1) 혼인 관계의 결혼식 여부

현재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에 해당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식을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96.0%가 결혼식을 하였고, 4.0%만이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연령별 특성에

표 1. 현 배우자와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결혼식 함	결혼식 안 함	명	%
전체	96.0	4.0	7,322	100.0
연령				
19~24세	38.1	61.9	49	100.0
25~29세	81.1	18.9	383	100.0
30~34세	94.7	5.3	1,098	100.0
35~39세	97.1	2.9	1,832	100.0
40~44세	98.2	1.8	2,082	100.0
45~49세	97.7	2.3	1,877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p. 88 (표 4-3) 재구성.

서는 만 19~24세 연령 집단이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61.9%로 나타나 다른 연령보다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만 25세 이상 연령 집단은 모두 결혼식을 한 비율이 더 높았으나, 만 25~29세 집단은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18.9%로 만 25세 이상 집단 중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만 30세 미만 연령 집단은 최근에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하지 않은 최근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또한 결혼식 앞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향과 허례허식 및 혼인 과정 간소화 분위기에 따라 결혼식을 하지 않은 젊은 층의 특성이 드러난 결과로 볼 수 있다.

## 2)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시점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와 결혼한 시점을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은 '결혼식을 한 시점'(67.8%)으로 나

타났고,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4%,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라는 응답은 10.6%였다. '기타'로는 '결혼 날짜 잡은 날', '부모님께 인사드린 날', '약혼식', '아이가 태어났을 때' 등의 의견이 있었다.

결혼의 시작 시점에 대한 생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남성은 여성보다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결혼식을 한 시점'과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실질적인 생활을 결혼의 시작 시점으로 보는 경향이 여성보다 강하고, 여성은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등과 같이 주변에 알리거나 법적으로 인정된 시점을 결혼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특성을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30대 이상 연령 집단에서는 결혼 시점을 '결혼식'으로 보는 기준이 더욱 강해지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표 2. 현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시점

(단위: %, 명)

구분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	결혼식을 한 시점	혼인신고 한 시점	기타	명	%
전체	21.4	67.8	10.6	0.2	7,322	100.0
성별						
남자	23.4	66.8	9.6	0.2	3,174	100.0
여자	19.8	68.6	11.3	0.2	4,148	100.0
연령						
19~24세	48.9	24.1	27.0	0.0	49	100.0
25~29세	33.9	42.0	24.0	0.0	383	100.0
30~34세	25.9	61.5	12.5	0.1	1,098	100.0
35~39세	19.9	69.8	10.1	0.2	1,832	100.0
40~44세	19.2	71.5	9.2	0.1	2,082	100.0
45~49세	19.5	71.8	8.3	0.4	1,877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90 (표 4-4) 재구성.

표 3. 현 배우자와 결혼했을 당시 기대

(단위: %, 명)

구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명	%
전체	78.0	95.8	90.7	91.0	7,322	100.0
성별						
남자	73.8	96.6	92.9	95.9	3,174	100.0
여자	81.2	95.2	88.9	87.2	4,148	100.0
연령						
19~24세	73.7	88.7	91.5	84.1	49	100.0
25~29세	75.3	95.3	84.0	91.1	383	100.0
30~34세	78.0	95.7	87.8	90.8	1,098	100.0
35~39세	78.8	96.6	92.0	92.0	1,832	100.0
40~44세	77.6	95.7	91.2	91.3	2,082	100.0
45~49세	78.3	95.5	91.9	90.0	1,877	100.0

주: 1)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하였음', '매우 기대하였음'으로 조사하였고, 표에 제시한 비율은 '기대하였음'과 '매우 기대하였음'을 합산한 수치임.

2)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92 (표 4-6) 재구성.

### 나. 배우자와 결혼했을 당시의 기대

현재 배우자와 결혼했을 당시 가졌던 기대를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구분해 알아보았다. 어느 정도 기대하였는지 보기 위해 ‘기대하였음’과 ‘매우 기대하였음’의 응답 비율을 더해 기대한 편에 속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는 약 78.0%로 다른 기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결혼에서 기대하는 바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만 35~39세 집단이 모든 분야의 기대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인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령 집단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 비율이 다른 것에 대한 기대 비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유일하게 만 19~24세 집단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

### 3. 동거 관계

현재 함께 사는 동거 상대가 있는 경우, 혼인 신고 하지 않은 이유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혼인 관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결혼식 여부, 부부 관계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시점, 동거 상대와 함께 시작했을 당시 상대방에게 기대한 점 등을 살펴보았다.

#### 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이유와 동거 상대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

현재 함께 사는 상대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집 마련이나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같이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8.7%로 나타났고, ‘결혼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어서’ 혼인신고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7%였다. 그 외에는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필요 없어서’, ‘아이나 재산 등 법적인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기타’ 응답으로는 ‘결혼식을 먼저 하려고’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어서’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결혼식이 혼인신고보다 선행되도록 하기 위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동거 상대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이유에서 남

성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고, 여성은 상대와 살아 보면서 확신을 갖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각 집단의 사례 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요하지만, 5세 단위별로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 살펴보았다. 25~29세 집단에서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 4. 동거 상대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같이 살아 보면서 상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기 위해	집 마련,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려고	아이를 안 낳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필요 없어서	아이, 재산 등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타	명	%
전체	20.7	28.7	32.2	4.7	3.7	5.1	5.0	336	100.0
성별									
남자	22.4	25.1	35.9	2.8	2.2	5.7	5.9	159	100.0
여자	19.2	31.9	28.8	6.3	5.0	4.6	4.1	177	100.0
연령									
19~24세	11.8	32.5	44.5	3.7	0.0	1.7	5.9	25	100.0
25~29세	30.0	27.3	28.5	0.4	0.0	7.4	6.4	111	100.0
30~34세	15.6	33.5	39.0	0.9	0.4	3.2	7.4	90	100.0
35~39세	24.1	28.1	33.8	7.3	3.4	0.0	3.3	46	100.0
40~44세	13.5	22.2	32.6	11.2	14.9	5.6	0.0	37	100.0
45~49세	12.1	24.9	9.2	22.3	18.1	13.3	0.0	27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103 (표 4-14) 재구성.

표 5. 동거 상대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구분	부부(혼인) 관계라 생각함	부부(혼인) 관계라 생각 안 함	명	%
전체	96.7	3.3	336	100.0
성별				
남자	96.1	3.9	159	100.0
여자	97.3	2.7	177	100.0
연령				
19~24세	81.1	18.9	25	100.0
25~29세	96.2	3.8	111	100.0
30~34세	97.9	2.1	90	100.0
35~49세	100.0	0.0	110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97 (표 4-10) 재구성.



게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점과 40대 이상 집단에서 '아이를 안 낳을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필요 없어서', '아이나 재산 등 법적인 문제 때문에'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볼 수 있다. 40대 이상 집단은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나 이혼 후 동거일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이러한 이유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 함께 생활을 하는 상대와 부부(혼인)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96.7%, 그렇지 않은 비율은 3.3%로 대부분 부부 관계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생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연령 집단마다 사례 수가 적은 집단이 있기는 하지만,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아, 만 35세 이상 연령 집단에서는 모두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결혼식 여부와 부부 관계 시작 시점에 대한 생각

현재 동거 상대와 생활하고 있는 집단은 결혼식을 하지 않은 비율이 65.1%로 결혼식을 한 비율보다 높았다. 연령 집단 중 만 30~34세는 결혼식을 한 비율이 45.5%로, 다른 집단보다 결혼식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상대와 부부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을 부부 관계의 시작 시점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76.9%, '결혼식을 한 시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1%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부모님께 인사한 날', '임신한 날' 등이 있었다.

여성과 남성은 동거 상대와의 부부 관계 시작 시점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령별

표 6. 동거 상대와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결혼식 함	결혼식 안 함	명	%
전체	34.9	65.1	336	100.0
연령				
19~24세	2.4	97.6	25	100.0
25~29세	33.8	66.2	111	100.0
30~34세	45.5	54.5	90	100.0
35~39세	36.0	64.0	46	100.0
40~44세	39.8	60.2	37	100.0
45~49세	25.7	74.3	27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95 (표 4-9) 재구성.

표 7. 동거 상대와 부부(혼인) 관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시점

(단위: %, 명)

구분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	결혼식을 한 시점	기타	명	%
전체	76.9	22.1	1.0	325	100.0
성별					
남자	78.0	21.5	0.4	153	100.0
여자	75.8	22.6	1.6	172	100.0
연령					
19~24세	98.1	0.0	1.9	21	100.0
25~29세	75.7	22.7	1.6	107	100.0
30~34세	69.8	30.2	0.0	88	100.0
35~39세	80.9	19.1	0.0	46	100.0
40~44세	70.5	27.5	2.0	37	100.0
45~49세	90.2	8.0	1.9	27	100.0

주: 1) 동거 상대와 부부(혼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응답한 결과임.

2)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박중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99 (표 4-11) 재구성.

로는 결혼식을 한 비율이 가장 높은 만 30~34세 집단이 부부 관계의 시작도 결혼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조사 대상 연령 집단 중 초혼 연령<sup>2)</sup>이 포함된 만 30~34세 집단은 혼인신고 하지 않은 이유 중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려고'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동거 상대와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은 집단 중 하나이다. 또한 동거 관계 중 결혼식을 한 비율도 가장 높아, 생각하는 조건이 갖추어지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법률혼 관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보인다.

#### 다. 동거 상대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당시의 기대

현재 동거 상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를 상대에게 어느 정도 했는지 알아보았다.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 비율이(93.3%) 가장 높았고,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86.5%)가 그다음으로 높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는 각각 65.9%와 63.8%로 심리·정서 면에 대한 기대나 성적 친밀감에 대한 기대보다는 낮은 경향

2) 2021년 기준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35세, 여자 31.08세이다.

표 8. 동거 상대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당시의 기대

(단위: %, 명)

구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명	%
전체	65.9	93.3	63.8	85.4	336	100.0
성별						
남자	64.9	92.8	71.3	90.0	159	100.0
여자	66.8	93.7	57.1	81.2	177	100.0
연령						
19~24세	58.2	93.6	59.0	94.9	25	100.0
25~29세	59.3	89.2	70.9	82.5	111	100.0
30~34세	76.6	99.5	70.8	92.9	90	100.0
35~39세	81.2	95.4	68.9	93.5	46	100.0
40~44세	70.3	95.9	48.5	80.7	37	100.0
45~49세	33.5	82.2	28.0	55.3	27	100.0

주: 1) '기대하였음'과 '매우 기대하였음'을 합산한 수치임.

2)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101 (표 4-13) 재구성.

을 보인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자녀 출산은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동거 관계에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는 다른 영역에 대한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적인 면이나 심리·정서적인 안정에 대한 기대에서는 성별 차이가 매우 작았다. 그러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나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기대는 남성이 71.3%, 여성이 57.1%로 동거 관계에서 여성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자녀에 대한 기대는 만 40세 이상 연령부터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며, 만 25~39세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 30대와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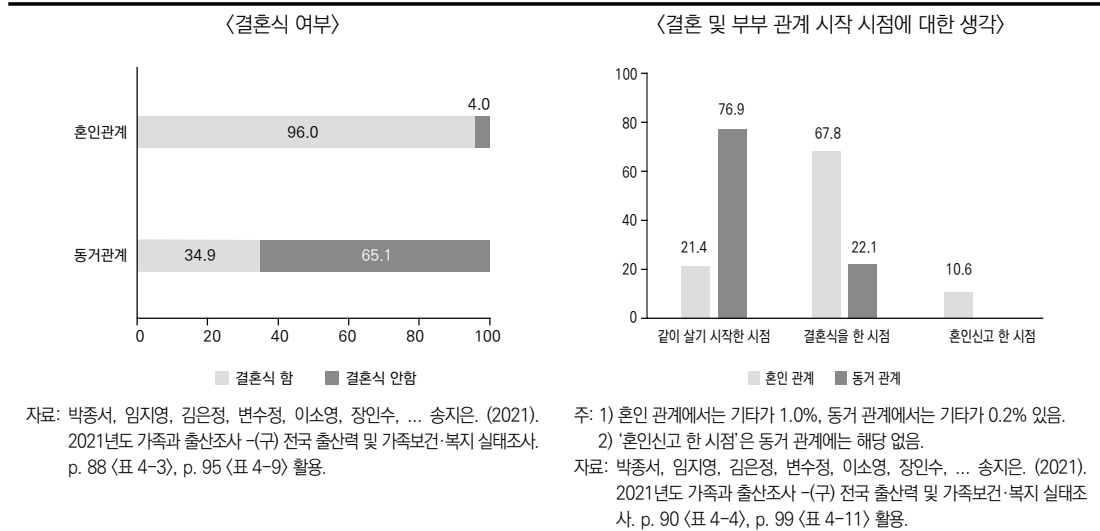
초반 집단은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를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는 연령 집단 중 만 45세 이상 집단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혼인을 가장 많이 하는 30대 집단은 다른 연령대보다 모든 면에 대해 기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 4.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 비교

법적 배우자가 있는, 혼인신고를 한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이 96.0%이고 동거 관계에 있는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이 34.9%로 결혼식 여부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결혼 또는 부부 관

그림 1.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결혼식 여부 및 관계 시작 시점에 대한 생각 비교

(단위: %)



계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시점에 대해 혼인한 관계는 '결혼식을 한 시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동거 관계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을 부부 관계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동거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 한 시점'이 선택 사항에 없지만, 혼인 관계에서도 혼인신고 시점을 결혼 관계의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 모두 결혼 및 부부 관계 시작에서 법적인 기준보다는 같이 살거나 관계를 주변에 알리는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혼할 때 또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상대에 대해 기대한 바를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동거 관계가 혼인 관계보다 모든 측면에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기대한 것의 순서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였다. 두 관계 모두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그러나 그다음으로 기대가 높은 부분에 대한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혼인 관계에서는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은 수준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동거 관계에서는 심리·정서적 기대 다음으로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대한 기대 순이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표 9.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에서 결혼 또는 함께 살기 시작했을 당시의 기대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하지 않았음	기대하였음	매우 기대하였음	명	%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혼인 관계	2.3	19.7	64.1	13.9	7,322	100.0
	동거 관계	4.4	29.6	56.3	9.6	336	100.0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	혼인 관계	0.5	3.7	65.8	30.0	7,322	100.0
	동거 관계	1.4	5.3	65.1	28.2	336	100.0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것	혼인 관계	1.9	7.4	66.2	24.5	7,322	100.0
	동거 관계	15.0	21.2	55.3	8.5	336	100.0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	혼인 관계	0.8	8.2	70.5	20.5	7,322	100.0
	동거 관계	1.3	13.3	68.6	16.8	336	100.0

주: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자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p. 91 (표 4-5), p. 100 (표 4-12) 재구성.

분위기상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시작 시점에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나가며

결혼은 선택 사항이 되고 그만큼 파트너십 선택이 다양해졌지만, 관련 조사나 연구는 혼인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동거 관계의 특성이나 관련 법·제도를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은 법적 혼인을 선택하지 않고 동거 관계로 생활하는 인구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거 관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배우자나 함께 사는 파트너의 유무, 혼인신고 여부 등을 활용해 법률혼 관계와 동거 관계를 구분해 파악하고, 각 상황에 적절한

질문을 구성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이 글에서는 각 집단의 결혼 관련 특성을 살펴보고 두 집단을 비교해 보았다.

법률혼 집단과 동거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당연히 혼인신고 여부이다. 혼인신고 외에 흔히 ‘결혼을 한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결혼식이다. 법적으로 혼인한 집단과 동거 관계에 있는 집단은 결혼식을 한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법률혼 관계에서는 다수가 결혼식을 하였지만, 동거 관계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결혼식을 한 것으로 나타나 혼인신고와 결혼식 여부와 같이 형식적 측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결혼식 여부를 비교하였으나, 향후에는 동거 관계 집단 내에서 결혼식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즉, 결혼식은 주변에 부부의 관계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동거

집단 내에서도 결혼식 여부에 따라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 한국의 동거 관계 특징을 세분화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법률혼 집단에서는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시점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혼인신고 한 시점이나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보다 결혼식을 한 시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 법적 혼인을 선택하는 집단에 결혼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동거 관계에서는 현재 파트너와 부부 관계를 시작한 시점으로 '같이 살기 시작한 시점'을 많이 꼽았다. 한국 사회에서 법률혼을 선택하는 집단과 동거 방식을 선택하는 집단은 결혼의 시작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률혼 관계에서도 결혼의 시작을 혼인신고 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결혼 관계의 시작에 대해 법적 기준보다는 관계를 알리거나 실질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등 실생활과 관련된 이벤트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동거 관계에 속한 경우도 상대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는 가족의 의미에서 법적인 가족 개념이 과거보다 약화되고,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까지 확대되는 경향(여성가족부, 2021)과 방향성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가족의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변화하는 파트너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혼인율은 감소하지만, 제도권에 진입하지 않은 파트너십도 존재한다. 그러나 혼인 외 관계의 규모나 증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다만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통해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결혼의 변화, 동거 관계, 그리고 관계의 특성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거 관계의 규모에 대한 통계와 실태 자료를 꾸준히 생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에서 파악한 특성에서 범위를 넓혀 가족 구성 및 관계 등 가족 생활의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밝히는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결혼과 가족 구성에서 법적인 측면보다 현실적인 생활이 중심이 되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포착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 있지 않은 관계라는 이유로 어떠한 보호나 지원에서도 벗어나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 (2021).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발행지: 여성가족부.
- 통계청. (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 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24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24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1. 10. 18. 인출.

통계청. (각 연도). 시군구/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출생, 사망, 혼인, 이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vw\\_cd=MT\\_ZTITLE&list\\_id=A2\\_6&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I&vw_cd=MT_ZTITLE&list_id=A2_6&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1. 11. 10. 인출.

---

## Some Key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Cohabitation

**Soo-Jung Byou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majority of partnerships in Korea are legal marriages, but there are also cohabitation relationships where two people live together unmarried. Given the diversity in partnerships,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separately investigated marriage and cohabitation.

Due to the marital status classification that has been traditionally used in related surveys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s have been mainly limited to legal marital relationship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cohabitation relationship are not well revealed, and there is a limit to a practical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artnerships in Korean society.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and cohabitation using the results of 「The National Family and Fertility Survey」, and also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several aspects. Although marriage and cohabitation are leg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y have similar features.

In order to clearly understand the diversity of partnership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figure out the phenomenon. It is important to generate related statistics and data in the future in that at the present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situation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r data on the cohabitation. Moreover, there is a need to bring into the social protection system those who have been excluded from it only because they are outside the legal framework.